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9.(목) 별도 문자 공지 배포 2026. 11. 19.(목) 12:00

K-푸드⁺ 수출 100억 달러 최단기간 달성, 11월 현재 120억 달러 상회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

- 10월 말 기준 농식품 90.7억 달러, 농산업 28.1억 달러로 전년비 각각 5.4%, 3.4% 증가
- 미국 등 주력 시장과 유럽·중남미 등 유망·신흥 시장이 고르게 성장
- 신선농산물 최초 1억 달러를 돌파한 포도를 비롯하여 라면·과자 등 열풍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0월말 기준 K-푸드⁺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한 118.8억 달러, 11월 현재 잠정치로는 122.9억 달러로 120억 달러를 상회하며 역대 최고 수출실적을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9월 역대 최단 기간인 262일 만에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단 기록을 다시 썼다.

*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농식품(신선, 가공) +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 K-푸드⁺ 수출액: ('25.10월) 11,317.7백만 달러 → ('26.10월) 11,875.7 (4.9%↑)

K-푸드, 미국·중국은 물론 중남미·유럽·중동 등 주력·신흥 시장 동반 성장

농식품(K-푸드)은 90.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으며, 증가율이 큰 권역은 중남미(29.4%↑)·유럽(EU+ 영국, 24.2%↑)·중동(GCC, 20.6%↑)·북미(11.7%↑)·중화권(7.0%↑) 순이었다.

* 농식품 수출액: ('25.10월) 8,602.9백만 달러 → ('26.10월) 9,068.1백만 달러(5.4%↑)
** 권역별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중화권) 2,081.2백만 달러(7.0%↑), (북미) 1,868.9(11.7↑), (아세안) 1,522.1(0.1↑), (유럽) 799.0(24.2↑), (중동) 409.5(20.6↑), (중남미) 258.1(29.4↑)

미국은 `24년 중국을 제치고 K-푸드 최대 수출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라면(276.5백만 달러), 과자(249.5백만 달러), 김치(38.3백만 달러), 배(20.7백만 달러), 포도(16.4백만 달러) 등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16.8억 달러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포도(전년 동기 대비 177.3%↑)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에스닉 마켓 중심에서 일반 소비자로 소비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 미국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276.5백만 달러(29.1%↑), 과자 249.5(14.8↑), 쌀가공식품 141.6(15.6↑), 김치 38.3(6.4↑), 배 20.7(5.7↑), 포도 16.4(177.3↑)

중국은 미국에 이은 2위 수출 시장이자 라면 수출 1위 국가로, 라면 수출은 전년보다 23.9% 증가한 395.5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라면과 함께 과자(91.8백만 달러), 맥주(16.2백만 달러) 등이 수출을 견인하면서 K-푸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14.1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 중국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395.5백만 달러(23.9%↑), 조제품 기타 188.7(2.0↑), 과자류 91.8(4.7↑), 맥주 16.2(28.9↑), 아이스크림 7.3(12.3↑)

유럽 권역은 전체적으로 국가와 품목이 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란드(전년 대비 109.9%↑), 스페인(33.4%↑), 독일(31.6%↑) 등의 성장세가 높았다. 품목별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닭고기(열처리가금육)가 6배 이상 증가하였고, 라면, 건강기능식품, 쌀 가공식품 등 성장률도 높게 나타났다.

* 유럽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237.2백만 달러(45.4%↑), 조제품 기타 30.6(25.2↑), 소스류 28.3(19.0↑), 쌀가공식품 24.2(11.5↑), 닭고기 8.2(555.7↑)

중남미 권역은 멕시코(전년 대비 93.0%↑), 브라질(43.8%↑)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선호하는 라면, 과자, 쌀 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고, 중동 권역은 중동 전쟁 발발 직후 물류 경색과 소비 위축 등으로 3월 수출이 1~2월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하였으나, 우회 경로 확보 등을 통해 수출이 회복되면서 전년보다 20.6% 성장하였다.

* 중남미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71.2백만 달러(147.3%↑), 조제품 기타 14.0(139.2↑), 과자류 12.8(36.8↑), 쌀가공식품 3.5(19.3↑), 아이스크림 3.1(65.9↑)
** 중동 주요 품목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연초류 314.7백만 달러(35.3%↑), 조제품 기타 6.2(45.2↑), 인삼류 1.6(28.6↑)

라면은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 포도는 신선농산물 최초 1억 달러 돌파

가공식품은 전년 대비 5.9% 상승한 78.0억 달러, 신선농산물은 2.7% 상승한 12.7억 달러를 기록하여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중 라면이 전년보다 26.3% 증가한 15.9억 달러를 달성, 지난 7월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대표 K-푸드로 자리매김하였다. 라면과 함께 과자, 소스, 쌀 가공식품 등도 높은 수출 증가 실적을 보였다.

* 주요 가공식품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라면 1,585.1백만 달러(26.3%↑), 과자류 677.1(7.7↑), 소스류 361.9(5.8↑), 쌀가공식품 249.9(8.9↑)

포도는 10월에 이미 작년 수출액(8,574만 달러)을 넘어서며 11월 신선농산물 최초로 1억 달러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다. 최대 시장인 대만이 전년보다 114.4% 성장하였고, 제2 시장인 미국은 코스트코 등 주류 유통망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전년보다 177.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수출액이 수입액을 넘어서면서, FTA로 인한 대표적인 개방 피해 품목에서 수출 효자 상품으로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 포도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대만) 51.4백만 달러(114.4%↑), (미국) 16.4(177.3↑)

김치는 미 행정부에서 발표한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에 장 건강을 돕는 발효식품으로 언급되는 등 그 우수성을 공인받아 북미 권역에서만 전체 수출의 약 1/3인 48백만 달러 실적을 기록하였다. 또한, 유럽, 중남미, 중앙아시아(CIS) 수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김치 수출액: ('25.10월) 137.4백만 달러 → ('26.10월) 140.3백만 달러(2.1%↑)
** 권역별 수출액(증가율): (북미) 38.3백만 달러(6.4%↑), (유럽) 20.0(4.2%↑), (CIS) 774천 달러(6.5↑), (중남미) 456(103.8↑)

딸기는 전년보다 15.3% 증가한 61.1백만 달러이며, 올해 기상 여건이 좋고 병해충 발생이 적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남은 기간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참외는 일본(전체 수출의 64%)의 1인 가구 증가 추세 속에서 크고 비싼 멜론을 대체할 합리적인 가격의 미니멀 과일이라는 인식과 함께 수출이 증가하였다.

* 딸기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싱가포르) 19.3백만 달러(25.8%↑), (태국) 16.6(20.6↑)
** 참외 수출액(증가율, 전년동기대비): (일본) 1,181천 달러(12.3%↑), (홍콩) 123(25.6↑)
일본 참외 수출액: ('25.10월) 1,051천 달러 → ('26.10월) 1,181천 달러(12.3%↑)

돼지고기(캔햄 포함)는 지난해 APEC 계기에 이루어진 싱가포르 제주산 한돈 검역 협상 타결 이후, '청정 제주', '제주산 흑돼지' 브랜드 홍보를 통해 삼겹살을 비롯한 신선육이 2백만 달러 이상 수출되었다. 싱가포르로의 돼지고기 수출은 4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 중 신선육 비중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까지 홍콩이 신선육 1위 수출국이었으나, 싱가포르 검역 타결로 싱가포르가 1위 수출국이 되었다.

* 돼지고기 수출액: ('25.10월) 35.8백만 달러 → ('26.10월) 41.3백만 달러(15.3%↑)
싱가포르 돼지고기 수출액: ('25.10월) 525천 달러 → ('26.10월) 2,158(310.8%↑)

한편, 정부의 전략적 검역 협상 타결로 신규 유망 시장 개척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베트남으로 열처리가금육이 첫 선적된 데 이어, 11월에는 17년간의 검역 장벽을 넘어 중국 시장에 국산 단감이 처음 진출했으며, 중앙아시아 핵심 거점인 우즈베키스탄으로 제주산 감귤이 첫 수출길에 올랐다. 맞춤형 검역 해소가 가시적인 수출 성과로 연결되면서,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시장 다변화와 수출 성장세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농산업, 비료·동물약품·스마트팜 중심 시장 다변화로 수출 증가세 지속

농산업은 28.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비료,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 주요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며 농산업 분야의 지속적인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 농산업 수출액: ('25.10월) 2,714.8백만 달러 → ('26.10월) 2,807.6백만 달러(3.4%↑)
** 주요 품목별 수출액(증감률): (비료) 478.8백만 달러(26.6%↑), (동물용의약품) 333.0(23.6↑), (스마트팜) 102.2(18.2↑), (농기계) 1,107.6백만 달러(△0.9), (농약) 756.5(△7.4), (종자) 45.2(△0.6)

비료는 중동 전쟁 등에 따른 물류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인도·일본·필리핀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전년 대비 26.6% 증가하였다.

* 비료 수출액(증감률): (인도) 151.0백만 달러(544.3%↑), (일본) 48.0(44.7↑), (필리핀) 32.9(120.5↑) (9월 확정치)

동물용의약품은 부스틴 수출 재개,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 북중미·유럽 등 주요 국가 반려동물 시장 확대에 따른 의료기기 수요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하였다.

* 부스틴 생산 공장(LG화학)은 2025년 2월 공장 화재 이후 2026년 2월부터 정상화
* 동물용의약품 수출액(증감률): (미국) 73.0백만 달러(456.3%↑), (스페인) 28.1(29.4↑), (프랑스) 25.2(147.9↑), (이탈리아) 20.5(90.7↑), (태국) 10.8(22.5↑) (9월 확정치)

스마트팜은 전쟁 영향으로 중동 등 유망시장 수출은 다소 둔화되었으나, 필리핀 ODA, 독일·체코 등 유럽시장 개척 영향으로 전년 대비 18.2% 증가하였다.

* 스마트팜 수출액(증감률): (필리핀) 7.5백만 달러(317.8%↑) (독일) 2.7(49.5↑), (체코) 2.0(40.3↑), (9월 확정치)

농식품부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물류비 상승 등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K-푸드+ 수출실적이 성장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도 더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특히 신선농산물 최초로 1억 달러를 달성한 포도의 성공 방정식을 다른 품목으로 확산시켜, 수출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10월(1.1.~10.31.) K-푸드+ 수출 실적(10월말 잠정치 기준)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김정락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담당 부서	농산업혁신정책관 농산업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남현중 (044-201-2471)
		담당자	서기관	김양일 (044-201-247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2026년 10월(1.1.~10.31.) K-푸드+ 수출 실적 *10월말 잠정치 기준

(단위: 백만불, %)

구 분	'25년 전체	'26년 누적 (1.1.-10.31.)	전년 동기대비
K-푸드+(총계, A+B)	**13,627.8**	**11,875.7**	**4.9**
농식품(계, A)	**10,394.4**	**9,068.1**	**5.4**
가공식품	8,831.3	7,799.4	5.9
-라면	1,520.9	1,585.1	26.3
-과자	759.3	677.1	7.7
-음료	656.7	568.7	0.6
-쌀가공식품	277.9	249.9	8.9
신선식품	1,563.1	1,268.8	2.7
-인삼류	264.0	197.6	△7.7
-김치	164.4	140.3	2.1
-딸기	72.0	61.1	15.3
-배	58.5	31.4	△10.4
-포도	85.7	91.2	85.2
-파프리카	46.5	35.2	△7.6
농산업(계, B)	**3,233.4**	**2,807.6**	**3.4**
농기자재	2,818.7	2,388.1	1.3
-농기계	1,367.3	1,107.6	△0.9
-비료	447.7	478.8	26.6
-농약	946.3	756.5	△7.4
-종자	57.4	45.2	△0.6
스마트팜	109.9	102.2	18.2
동물용의약품	334.3	333.0	23.6
펫푸드	160.5	136.9	△2.0
해외농업기반시설	-	7.5	순증
식품기자재	163.4	164.1	7.5

* 농기자재·동물약품은 10월 잠정치, 스마트팜·식품기자재는 9월 확정치